WORLD CLASSIC MUSIC FOR GUITARIST

1 세계명주가를 위한 세계명 곡집

허병훈 엮음

WORLD CLASSIC MUSIC FOR GUITARIST 1

ToccataK. H. Kapsberger・・ 6
Lute Suite I (류우트 조곡 제 1 번)·J. S. Bach
Präludium····· 프렐류드 ···· 존
Allemande
Courante····· 쿠 랑 트 ·····11
Sarabande······ 사라반드 ······12
Bourree······· 부 우 레 ······13
Gigue······· 기 그 ······14
Partita No.15 ················(파르티타 제15번) ···S.L.Weiss
Prelude······ 프렐류드 ······16
Toccata······ 토카타······17
Fugue······ 푸 가 ·······18
Récit du Pecheur M. de Falla 20
Chanson du Feu Follet(도깨비불의 노래)M. de Falla
La Catedral (대성당) A. Barrios26
Las Abejas (연습곡)A. Barrios30
Sevillana ······ J. Turina ······32
Manikin Dance···········(난장이 춤)····································
Cinq Preludes(다섯개의 전주곡집)Villa-Lobos
No. 1 ······43
No. 2 ······48
No. 3 ······ 52

No. 4 ····· 54
No. 5 ····· 56
Capriccio Diabolico·(악마의 기상곡) M. Castelnuovo·Tedesco·59
Sarabande ······· (사라반드) ··········F. Poulenc ·······71
Segoviana ··········(세고비아 찬가) ······· D. Milhaud ·······72
Trois Pieces······(세개의 작품집) ······ A. Tansman
Canzonetta······ 칸쪼네타············74
Alla polacca······· 알라 폴라카 ··································
Berceuse d'Orient 동양의 자장가
Mazurka ····································
Introduction and Dance(서주와 춤)
Five Exotic Dances · (다섯개의 이국적인 무곡집) · P. van der Staak
War Dance 전쟁의 춤92
Armenian Dance아르미니아의 춤93
Dance of A Tribal Chief 추장의 춤
Hungarian Dance 헝가리의 춤95
Sword Dance 검무=칼춤96
Cancion Y Danza No.1(노래와 춤)L.Pipo
Cancion······ 노래 ····· 98
Danza No. 1······ 무곡 제 1 번 ······ 99
Sons de Carrilnões·······(중소리) ·······Araujo·······102
Suite
Toccata ······
Gavotte und Musette 가보트와 무제트104
Air·············선율·······················
Gigue・・・・・・・・・・・・・・・・・・・・・・・・100

Toccata





Lute Suite No. 1 (e-moll Bwv 996)





Allemande



Courante



Sarabande



Bour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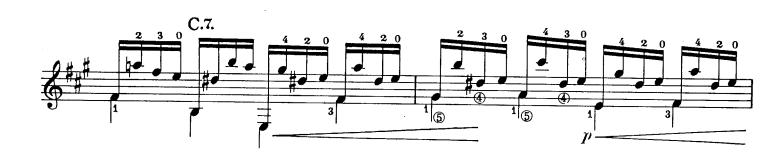
Gi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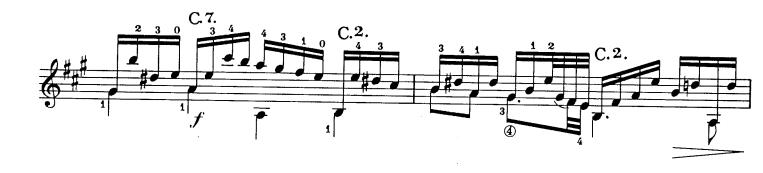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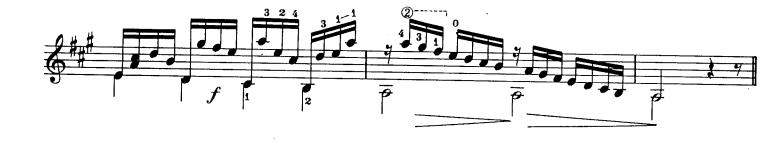
Partita No.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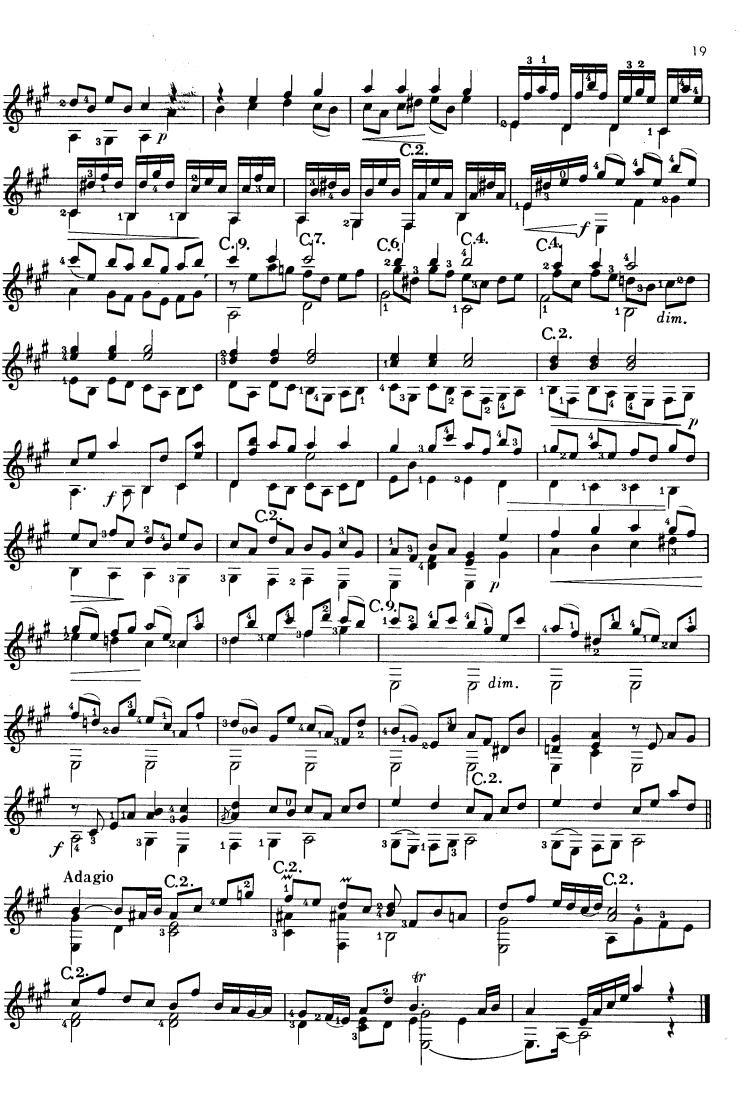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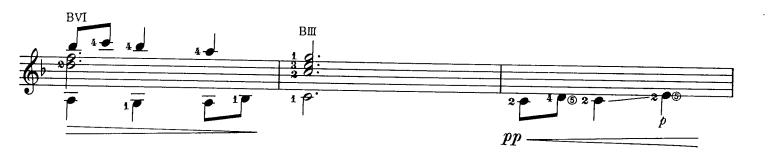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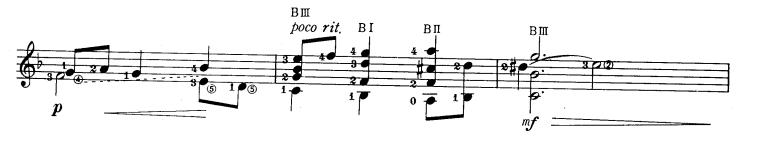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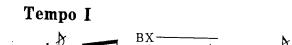
Récit du Pêch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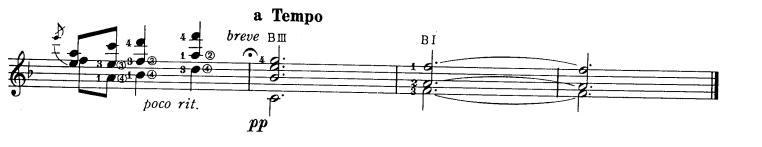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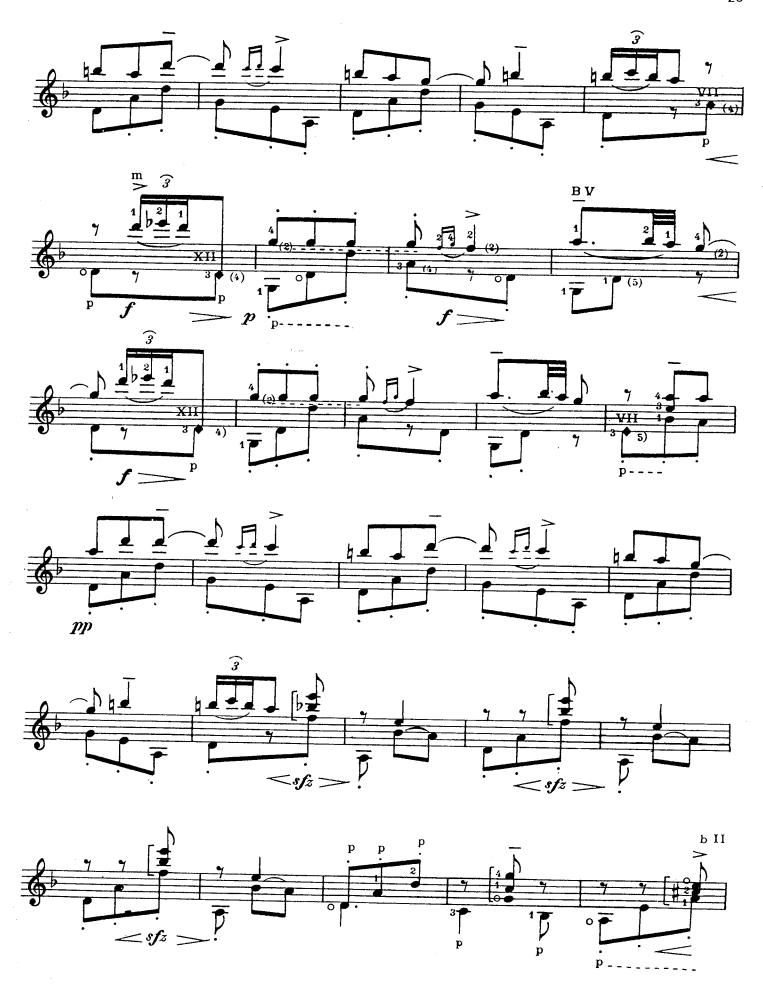




Chanson Du Feu Follet Extrait De L'amour Sorcier

Transcription De Emilio Puj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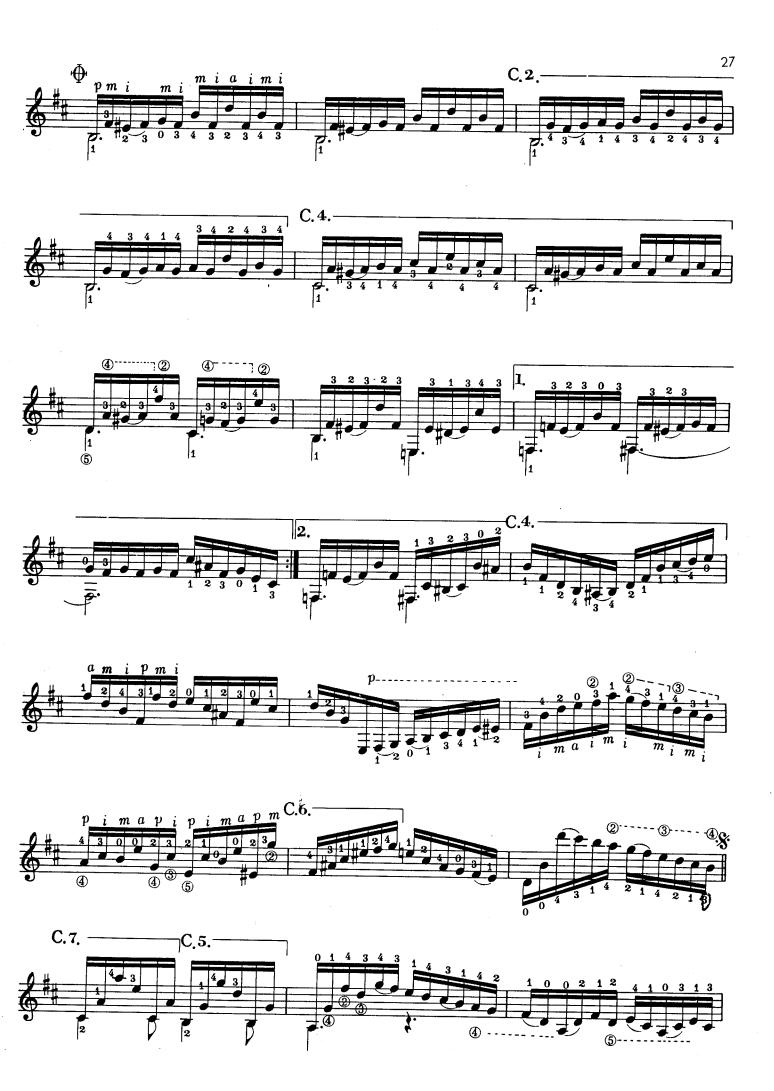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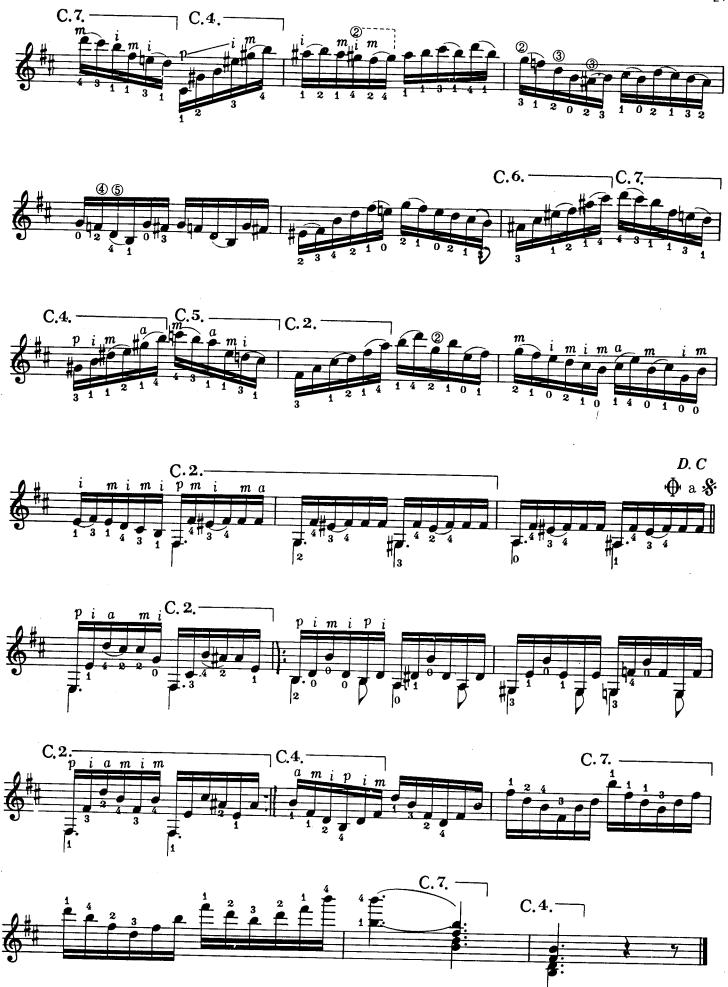


La Cated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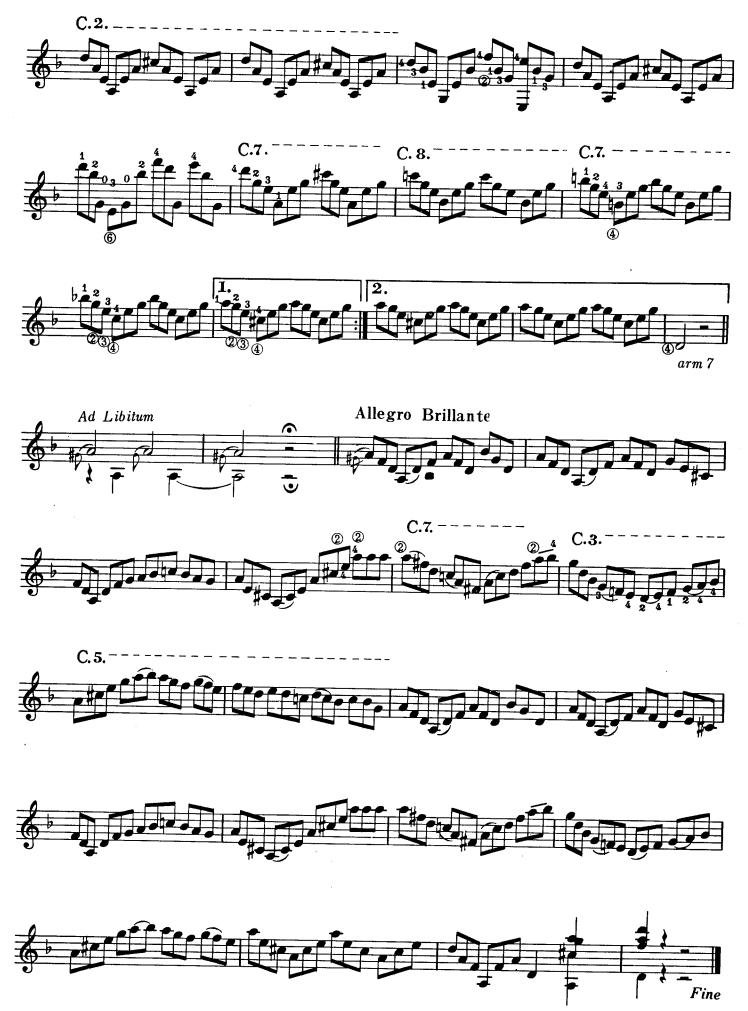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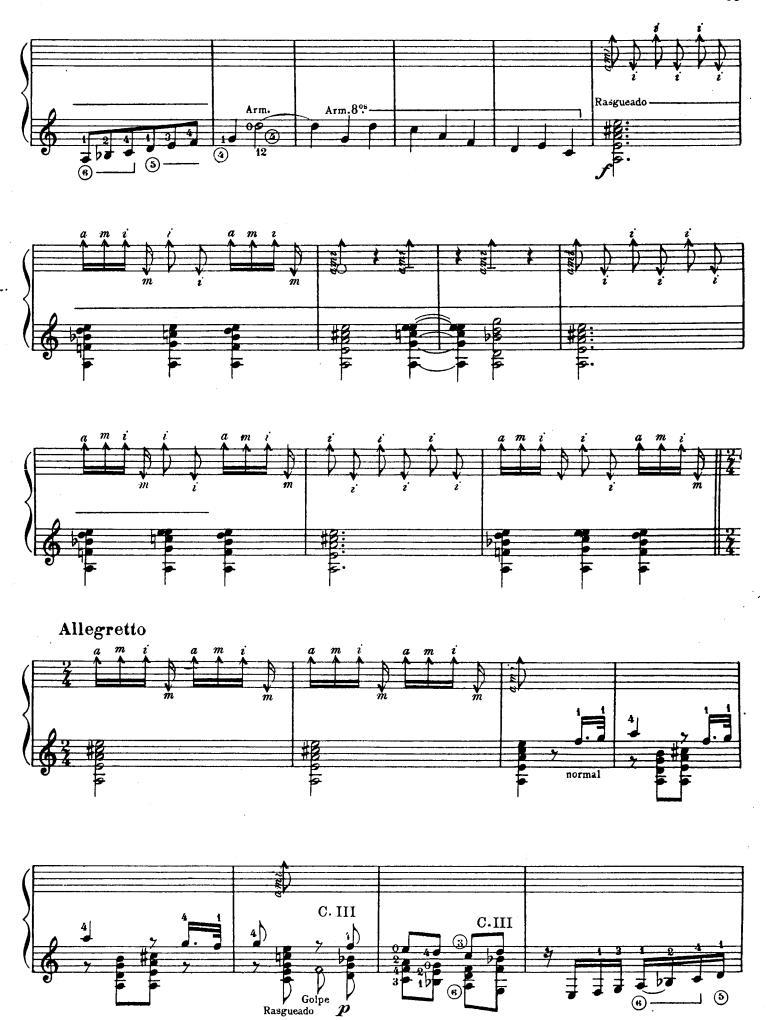
Las Abejas (Estudio)





Sevillana (Fant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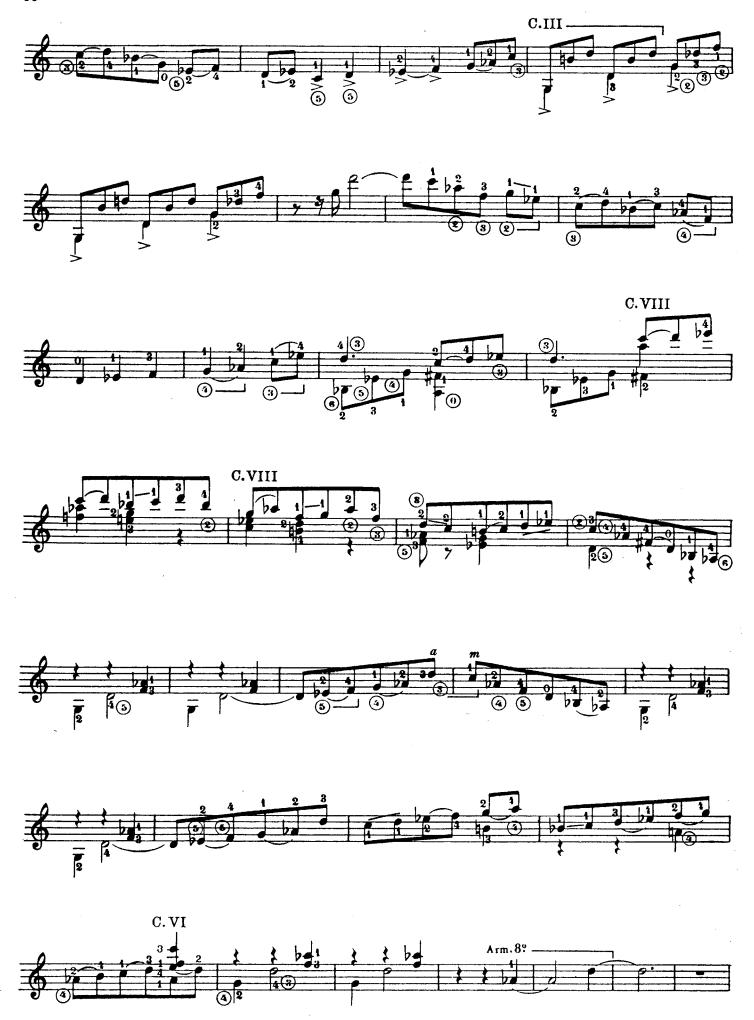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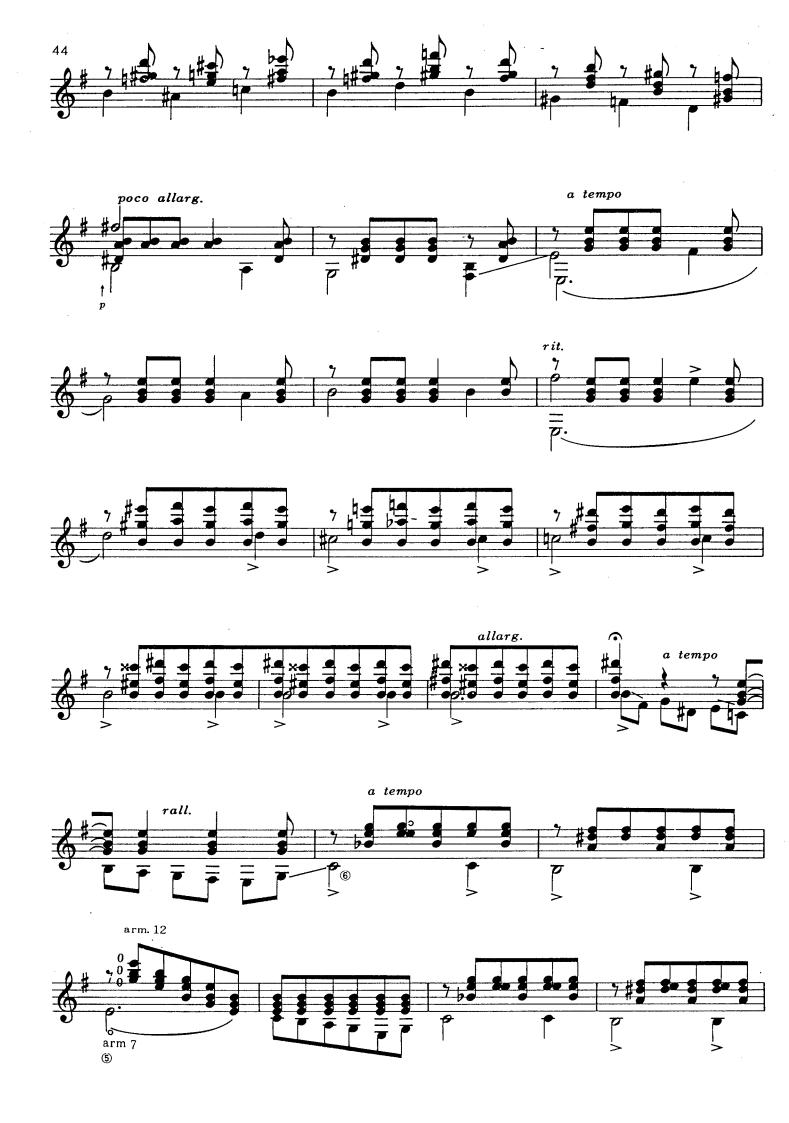


Manikin Dance



Cinq Prelu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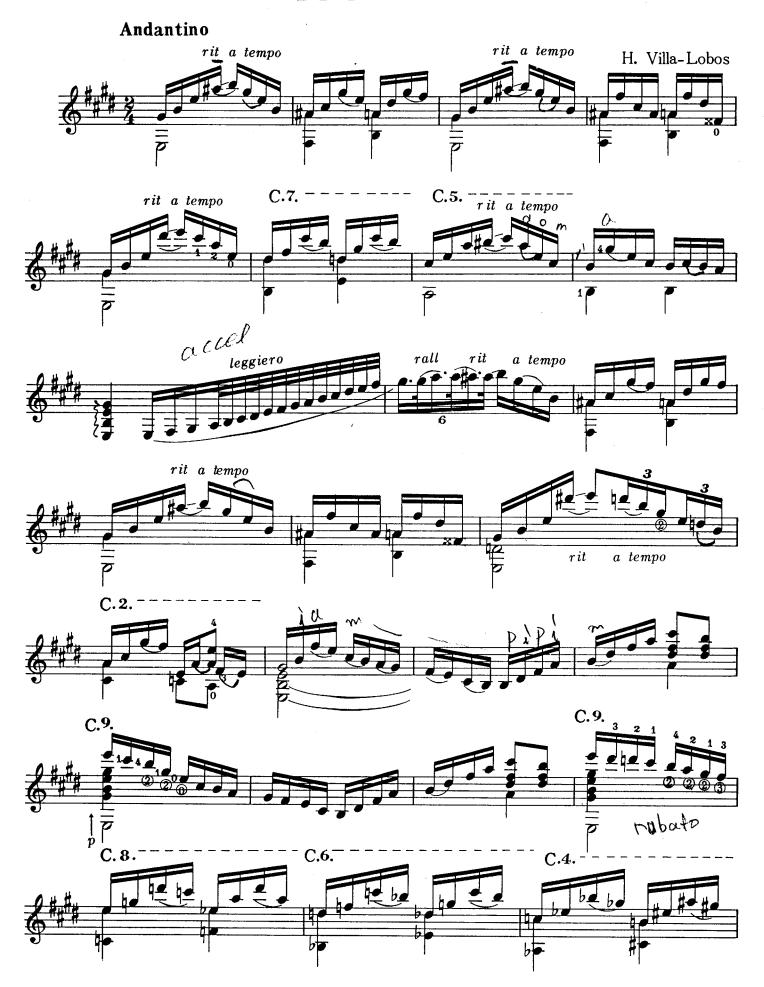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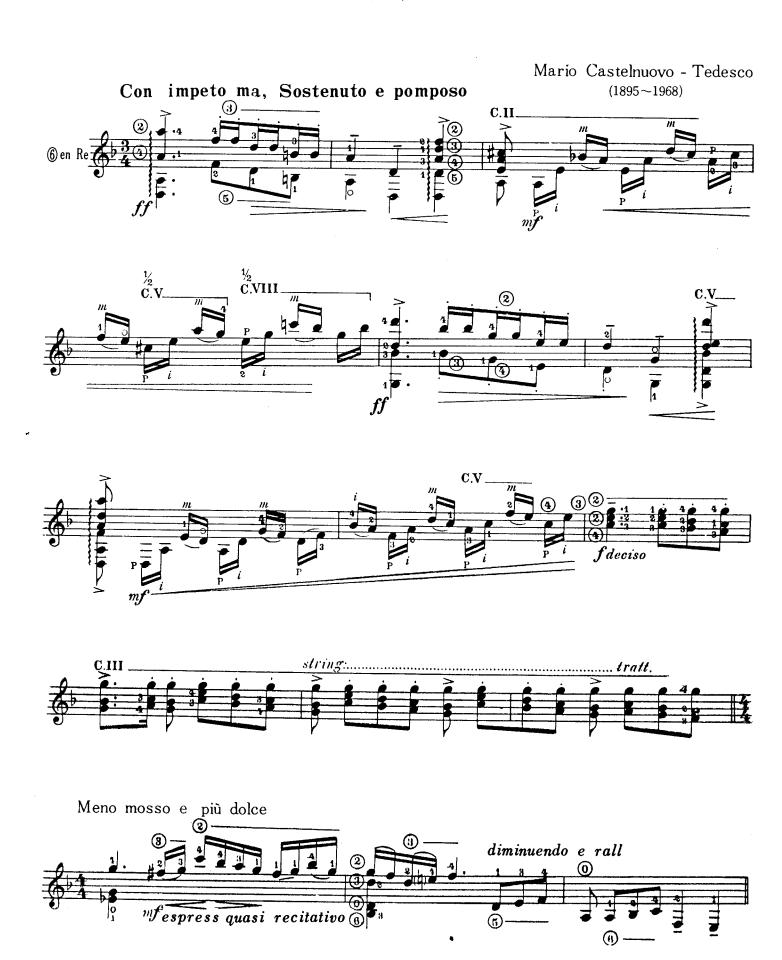




Capriccio Diabolico

(Omaggio a paganini)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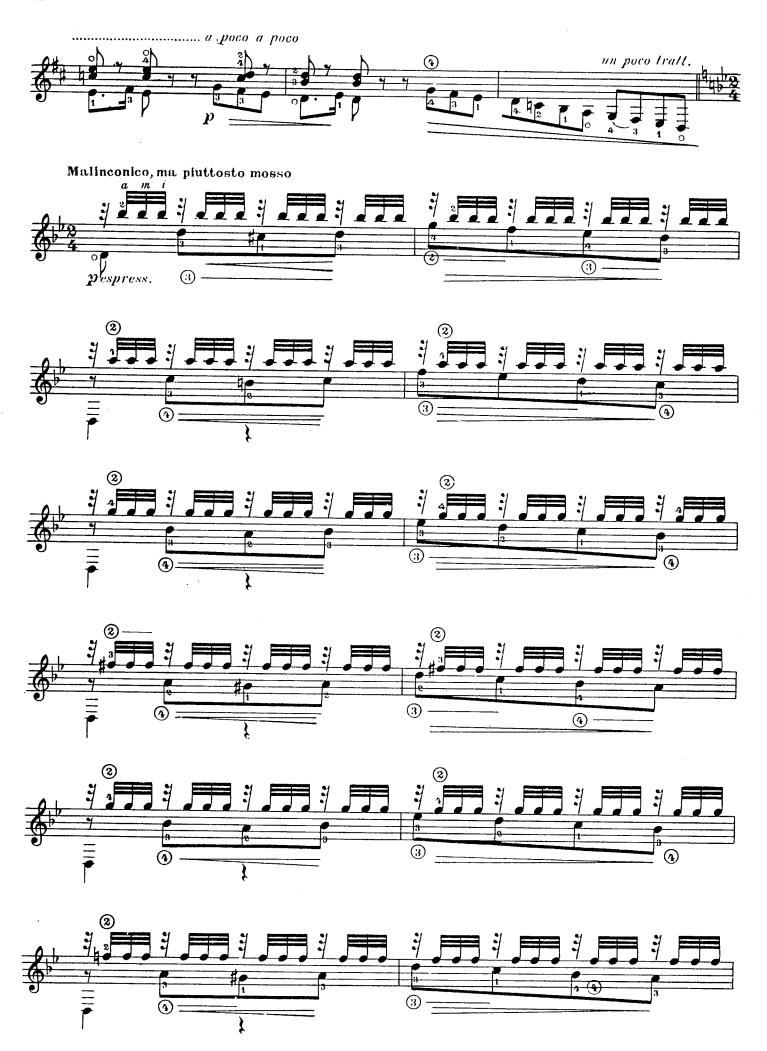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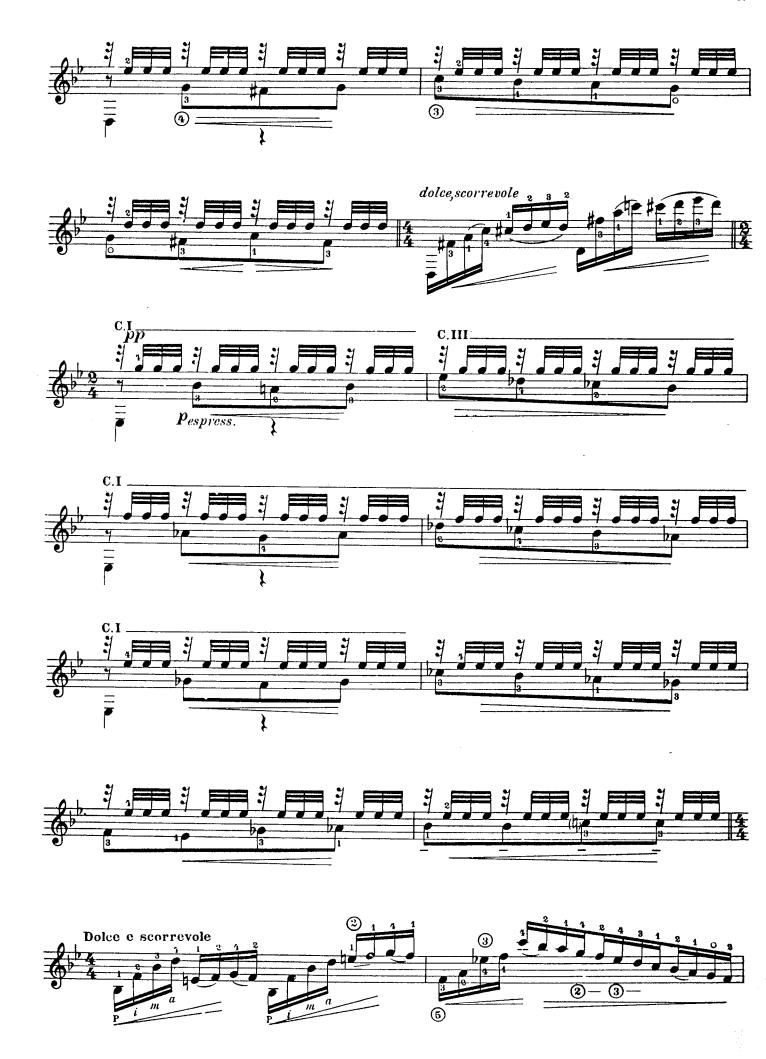


















Saraba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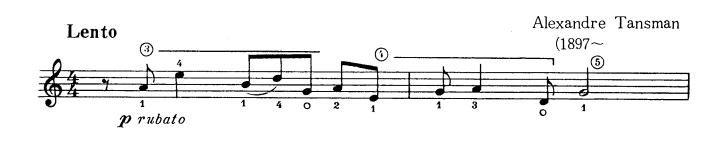
Segovi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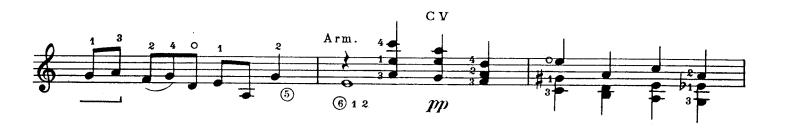


Trois Pieces

I. Canzonetta













I.Alla Polacca





■. Berceuse D'orient





Mazurka

Alexandre Tans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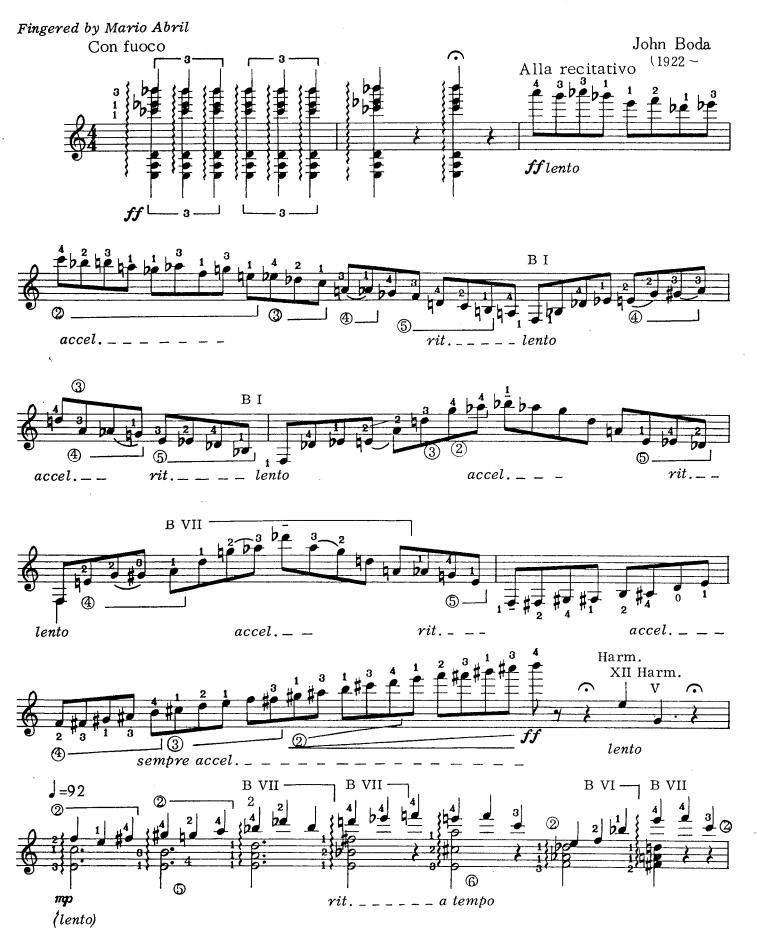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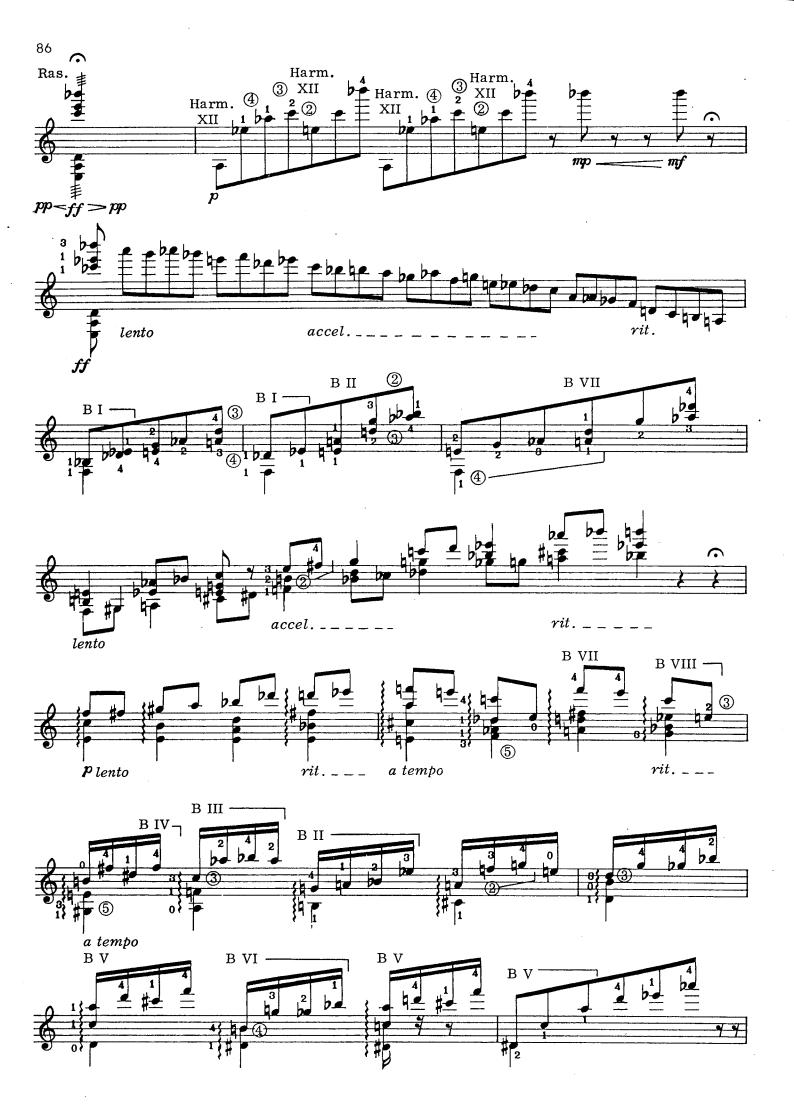


Introduction and Dance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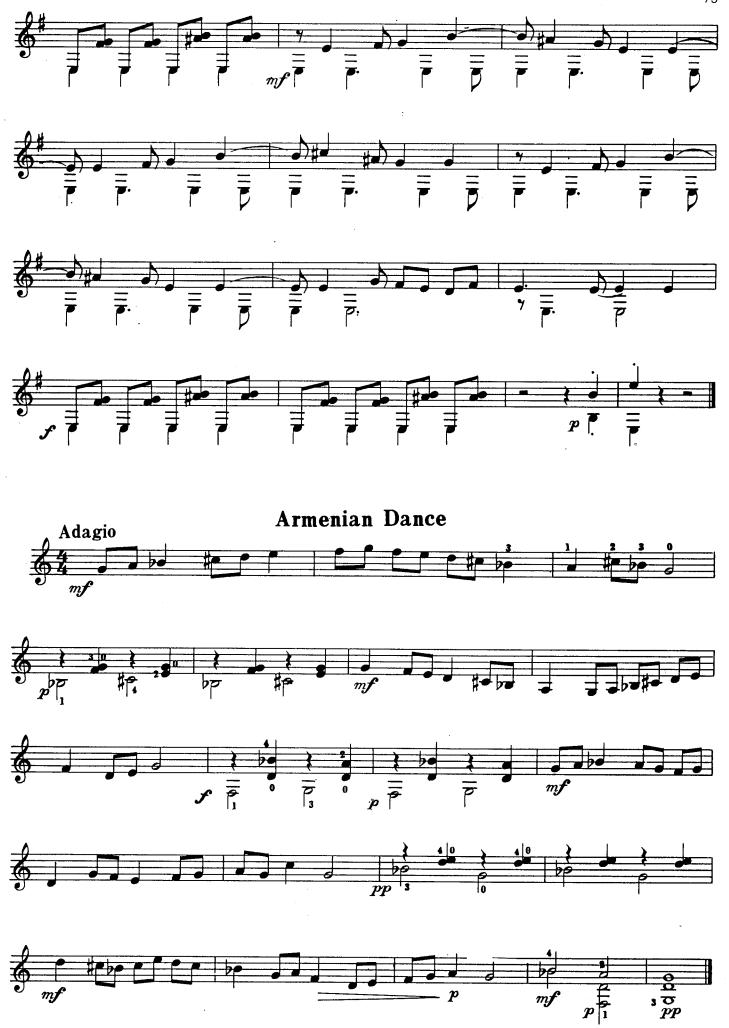






Five Exotic Dances





Dance Of A Tribal Chief



Hungarian Dance







Cancion Y Danza No. 1 (Cancion)



Danza No. 1







Sons de Carrilnões





Suite

Toccata











악곡・주법 해설

허 병훈

J. S. Bach 1685~1750

Lute Suite No. I

이 조곡은 건반악기를 위하여 손을 빌어 쓴 악보로 몇편인가 남겼지만 그 근본은 류우트(Lute)를 위하여 쓰여 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고찰일 것이다.

이 곡은 전반에 걸쳐 비상(飛翔)한 도약(跳躍)이 있으며 대담한 꾸밈음을 써서 웅장한 스케일과 무겁고 깊은 내용을 강력하게 집약시킨 바하(Bach)의 또다른 다양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류우트(Lute)곡으로 당연히 기타(Guitar)에도 잘맞는 높은 수준의 레퍼터리라고 말할 수 있다.

(※바하의 음악은 악기의 특성에 지배 받지 않게 쓰여졌기 때문에 연주가 가능하다면 어떤 악기로 연주하여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밝혀둔다)

(Präludium)

처음 (passaggio) 4 마디까지의 조용한 흐름은 강력한 암시를 나타내는 진행으로 제 4 박에 꾸밈음 (₩=Mordento) 으로 장대한 오르간풍의 전주가 열리기 시작하여 프레스토(presto)의 경쾌한 템포(tempo)를 밟고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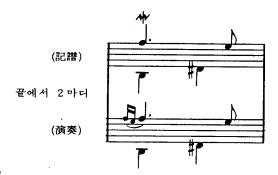


(Allemande)

빠른 템포(tempo) 일수록 요령과 여유를 갖지 못하면 그 곡은 쉬 불안해지고 번잡해짐을 피**할수 없다.** 여기에 서 오른손에 특히 엄지(p)의 놀림을 슬러(slur)로 묶었다. 왼손의 연결은 4개의 손가락이 항상 지판을 떠나지 않 으면서 사용하도록 운지를 고려했으니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Courant)

J-Andantino(안단티노)=88정도로 섬세하고 강하게 음량 조절에 민감해서 장중한 가운데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대위(対位)로 떨쳐지는 저음부에 제값을 잘 나타내며 프레이징에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Sarabande)

Courante 보다 간결한 느낌을 주지만 몇군데 복잡한 요소를 갖고있는 곳도 있다. 말 그대로 느리고 무겁게 연주하는 곡이다.

⟨Bourree⟩

」=120∼152 급속한 템포로 익살스럽게 연주 되지만 그 선율은 결코 희극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어느 한곳을 보아도 그대로 넘길수 없는 곡이다. 고음부와 저음부의 명확한 탄주(弾奏)가 필요하며 특히 엄지 (p)의 뚜렷한 흐름이 훌륭히 처리 되어야 할 점이 이곡의 중요한 포인트(point)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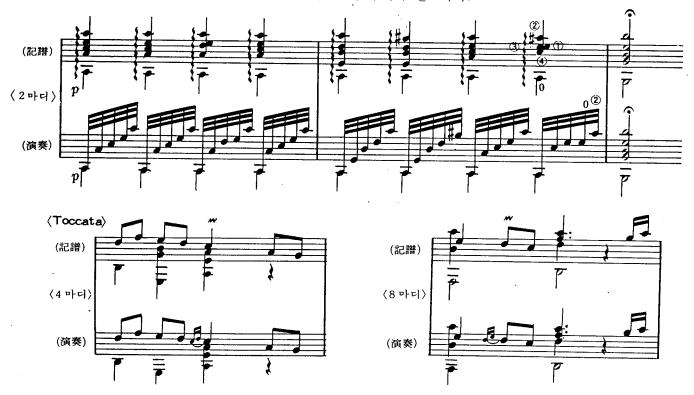
(Gigue)

추축을 불허하는 도약(跳躍)과 비상(飛翔)이 있는 대담한 곡이다.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을 요구하고 3도의 스케일(Scale)과 10도, 8도의 비상(飛翔)에 선명한 흐름이 빠른 속도로 피날레를 장식해야 될 곡이다. 이러한 무궁동(無窮動)의 기법(技法)에는 명확한 프레이징 습득이 필요한 요점이라할 수 있다. .

Sylvius Leopold Weiss $1686 \sim 1750$

독일의 위대했던 류우트(Lute) 주자(奏者)

《Prelude》; 2 마디까지 계속되는 엄지의 운동은 실제 연주에서 펼침화음 (Arpeggio) 으로 다섯개의 작기 다른 화음 (Chord)을 탄주 (弹奏)할 때 고르게 음과 음 사이가 배열되어서 엄지(p)를 미끄러뜨리는데 하등의 시차(時差) 나 힘에 균형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둘째마디 제 4 박은 캄파네라(Campanella) 형으로써 갑자기 출현되는 2 개의 개방현 역시 똑같은 힘의 배열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Manuel de Falla 1876~1946

20세기 스페인 음악을 대표하는 스페인 최대의 작곡가인 그는 1910년대의 「사랑은 마술사」와 「삼각모자」등으로 각광 받기 시작하였으며 인상주의(印象主義)적인 수법으로 「스페인 정원의 밤」을 써서 크게 성공했고 인상파(印象派)로 부터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로 방향을 바꿨던 그는 스페인 국민주의(国民主義)의 원조(元祖)인 페드렐에게 사사(師事) 받으며 스페인 음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사명감(使命感)을 불러 일으키어 스페인 민족음악을 그대로 소재로 삼지않고 그것을 소화시켜 그 분위기를 더 높게 중화시켰던 세계적인 작곡가이며 되아노 연주자로서도 이름이 있던 인물이다.

(Récit de pecheur)

이 곡이 갖는 정취는 고요하다. 강렬한 금속성의 꾸밈음 속에 피아니시모(PP=여리게)가 극도의 자재(自在)를 요구하며 꾸밈음 뒤의 지극히 정결한 것을 불러 일으키는 이 곡은 연주에 앞서 주자(奏者) 스스로가 고요한 마음 가짐으로 사색의 연주가 되도록해야 한다.



※ 왼손의 자세는 가운데손가락(2)과 집게손가락(1)의 나란한 자세로 인해서 새끼손가락(4)의 간결한 놀림에 지장이 있다. 꾸밈음을 처리할 때 완전히 새끼손가락(4)을 내려뜨리지 말고 어느정도 허공으로 치솟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곡 끝 부분의 breve는 2온음부라는 뜻이 있다. 완전히 쉬어 주고 끝을 맺어야 된다.

\langle Chanson du Feu Follet \rangle Vivo (J = 69)

빠른 템포 (Tempo)속에 제 3 박의 스포르짠도(Sforzando =특히 그 음을 세계)는 엄지(♣)의 강력한 속도와 힘으로 그 효과를 얻어야 하며, 자칫 속도에 치중하다가는 엄지 다음으로 이어지는 꾸밈음이나·자연 하아모닉스 등의 연결이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왼손의 절도와 오른손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



※ 브릿지(Bridge=Puente) 하단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점을찍듯 때리는 동작이다. 다음 엄지 (p)의 동작과 연결이 원만할때까지 충분한 반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Percussion

⟨Agustin Barrios⟩ 1885~1944

파라파이의 기타리스트로 기타의 마왕이라 칭했으며 그의 생존시 세고비아(A. Segovia)는 그를 최대의라이벌로 삼았고 지금까지도 경원하고 존경한 나머지 한편의 그의 작품도 공식 연주하지 않았다는 위대한 기타리스트이다. 그는 바하(Bach)를 열심으로 연구하였지만 시종 민족성의 토대 위에 그의 음악을 승화시켰다. 여기 소개되는 「La catedral」과「Ras Abe,jas」는 그의 좋은 작품으로 색체나 음향의 전달성은 끊임없이 흐르는 무궁동(無窮動) 기법의 빠른 템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곡이 좋은 보기가 되겠지만 어떠한 곡이 대부분 음계(Scale = 스케일)적이라 해서 아포얀도(Apoyando)로만 연주해선 안된다. 결국 아포얀도의 남용은 속도에 제한과 음색의다양성에 부족을 가져다 주며 기술상 오른손 놀림의 곤란을 감수해야만 된다.

이것들은 아포얀도로도 되겠지만, 슬러(Slur)의 첫머리만 아포얀도로 탄주(彈奏)했을 때와 음색의 다양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〇표시 있는 부분을 아포얀도로 사용해 보고 전체를 알·아이레로 혹은 아포얀도로 탄주(彈奏)했을 때를 비교해 보라. 위의 것들은 기타 주자(奏者)로서 습득해야 할 최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음량과 음색의 요리를 할 능력이 생기게 하고 음악 해석의 다양한 자도를 얻게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하며 오른손의 원만한 구사를 습득케 되는 주요점이 되는 유일한 연구와 노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때문이다.

La cated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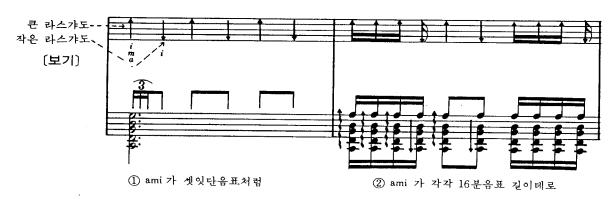


Las Abej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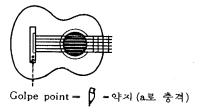


Joaquin Turina 1882~1949

현대 스페인의 작곡가로써 애스플라 로드리고등과 활동하는 세계적인 작곡가이다. 강렬한 플라멩코 (Flamenco) 풍의 리듬인 라스캬도 (Rasguedo)와 슬러 (Slur) 그리고 여섯잇단음표, 셋잇단음표의 선율로 엮어지는 이 작품은 많은 불협화음에서 항상 협화음으로 진행시키는데 중간부의 전개는 극히 스페인적인 풍토를 그린 것으로 1. 3의 효과와 셋잇단음표의 뉴앙스가 일품이다. 이 곡은 큰 라스캬도와 작은 라스캬도로 나누어 진다.



위의 [보기]는 실제 연주에서 사용되는대로 풀어 쓴 것이다. 라스갸도로써 줄에 충격을 줄때 약간 손목에 관절운동을 허용하면서 최대한 부드럽고 고운 소리가 되도록 한다. 또한 골페(Golpe=플라멩코 기타의 울림구멍 바로밑에 부착시킨 셀루로이드 판을 때리는 것. 기호=β)의 명확한 소리를 얻어야 하며 기타의 앞판이 상할 우려가 있으니 줄을 매는 브릿지 하단에서 이 주법이 사용된다.



[보기]의 ①과 ②의 라스캬도에서 각각 음표에 길이가 있다. ①의 경우는 ♪=a,m,i가 한꺼번에 라스캬도가 되므로 마치 ♬ 과 같이 되어서 다음의 ♪=i로 라스캬도와 합쳐 1 박자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②의 경우는 ☐ # 가·각 》의 길이가 주워지므 로 서로 비교하며 그 길이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Heitor Villa Lobos (1887~1959)

브라질의 작곡가 및 지휘자로 중남미 최대의 음악가인 그의 작품은 폰세 (M. Ponce)의 여성적 작품에 대조되는 남성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굵은 선과 가냘픈 두개의 선이 조직되어서 열정과 감미로움을 주는 그의곡 상은 엄밀한 규칙이라기 보다는 즉흥적인 남미의 리듬과 함께 그의 작품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또한 2개의 조성으로 한개의 작품이 짜여지거나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면을 교차시키는 3부 형식과 같은 곡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곡 다섯개는 개개의 특성이 뚜렷한 곡이고 그 표현하는 기법이 다양해서 그 어떤 기타곡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받게되는 곡이라 할 수 있겠다.

(Prelude No. 1)

제51마디를 살펴보자 혼히 음반이나 연주를 통해서 이 곡을 접해 볼 때 실제 약보의 내용과는 다른 연주를 듣게 된다. 여기 그 부분만을 실제 연주 되는데로표시했다. 연주하는데 참고가 될것이다. 이 곡은 대개 ④,⑤번줄에 멜로디가 있어서 그것은 볼륨(Volum)면에 있어서 특히다 른 줄과 큰 차이가 있다. 작곡자는 강렬하고 독특한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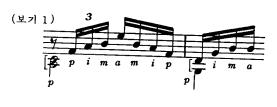
뚜렷한 흐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상 조용한 흐름이 끝나면서 Piu mosso 부분의 알레그로(Allegro)의 템포에서 이 곡의 많은 장식이 끝난다. 이 부분에 좀더 정확한 템포와 뚜렷한 펼침화음(Arpeggio)이 되 도록 힘써야 한다.

(Prelude No 2)

rubato (rit)~a tempo로 남미 특유의 속도 감각을 보여주는 연주가 되어서 더한층 감미로움을 나타내는 해석이 요구된다. 본래의 똑 같은 템포로 연주해 보면 작곡자의 의도를 잘 알수 있으리라 믿는다.

Piu mosso의 펼침화음에서 두번에 걸친 엄지(p)의 운동이 속도를 내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러나 엄지(p)의 작용이 아니고는 이 부분에 다른 어떠한 손가락 도 그 가능을 살려서 이 곡을 해석할 수는 없다. 대개의 경우 처음 두개의 음을 엄지(p)로 동시에 칠 때 ♪음표의 길이가 되고 나머지는 ♪= ♥ 과 같은 소리를 얻기가 쉽다. 고르게 ♬️ 과 같이 얻기 위해 서는 처음 엄지로 (⑥, ⑤ 번줄 동시)치고난후 손을 떼어 같은 동작 을 되풀이 하지 말고 다음 ④ 번줄에 엄지가 멈추면서 두번째의 엄지 동작을 이루어 i ma의 순서로 퉁겨달라는 것이다. 엄지의 정확한 규 칙과 힘을 길러야 좋은 연주가 될수 있다. 잘못하여 보기①과 같은 연주가 되어서는 않된다.



(Prelude No. 3)

A+B+A형식으로 전반부는 남성적인 화음의 폭넓은 전개와 음계의 서로 틀린 형식의 도약이 있으며 개방 현의 음폭을 살린 캄파네라형(campanella 型)의 무리화음이 하행(下行)으로 선율을 밟다가 은연중 중간부 반 음계의 선율에 접한다. 중간부는 유연한 맑음을 지닌 가장 여성적인 하행(下行)의 안정된 진행을 보여주는데 내면에 흐르는 정취 또한 깊고 고아(高雅)한 것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되풀이다. 전체적으 로 즉홍성을 띄우면서 우미(優美)하고 사색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Prlude No 4)

저음의 폭 넓은 톤(음량)과 색갈(음색)의 조화를 하아모닉스와 유기시켜서 중간 부분의 급속한 템포의 흐름에 부자연스럽지 않게 연결시켜야 한다.

(Prelude No. 5)

전원적인 풍경을 그린 곡으로 중간부의 저음을 좀더 남성적으로 묘사했으며 No. 1 과 사상적으로 합류되는 곡이 라고 할 수 있다.

Mario Castelnuovo-Tedesco 1895~1968

이태리 태생의 세계적인 작곡가로 피젯티에게 사사 받음.그의 작품은 과장을 피하여 감상미(感想味)를 없애 버 리고, 고아(高雅)한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섬세하고 세련된 서정을 특색으로 한다. 그의 대표작에는 가극「라 만 도라고라」,「쥴리아스 시저」「옛말」바이올린 협주곡, 기타협주곡(D Major)등 많은 기타곡과 실내악, 성악등을

(Capriccio Diabolico)

파가니니의 찬가(omaggio a pagganini)라는 부제(副題)가 있는 이 작품은 파가니니의 소나타(Sonata)를 의식하고 파가니니의 수법을 사용해서 그에 대한 존경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형식에 있어선 소나타(Sonata = Homage a Bocherni) 보다 일층 더 자유롭게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기법으로 창작한 것이다.

Francis Poulenc 1899~1963

프랑스 현대 음악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의 한사람, 1947년「미요」의 귀환을 축하하는 오페라(Opera) 부파티레시아스의 유방(Les Mamelles de Tirésias)를 작곡하여 새로운 현대 작곡가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깊이있는 유니크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음악적 특징은 젊고 신선한 싯적(詩的) 감정이 풍부하며 자유스런 멜로디와 매혹적인 관능성과 세련된 취미등을 살린 것이라 하겠다. 단지, 기타 작품은 만년(晚年)에 "이다·프레스티"(Ida presti)를 위하여 쓴 29마디의 사라반데(Sarabande) 하나뿐임이 유감스럽지만 이곡의 간결하고 자유스런 형식은 위에 기술한바 사실로서 잘 표현된 높은 기품이 깃들인 곡이다. 지극히 단순하고 고아(高雅)하게 서정적인 기분으로 연주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현의 울림에 수평진동을 가져다 주고 같은 형식일 때는 변화를 시도해도 좋을 것이다.

Darius Milhaud 1892~

세고비아(A. Segovia)에게 받친 61마디로 된 이 곡은 1959년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프랑스적인 명료(明瞭) 한 가운데 유태 종교적 위엄과도 같은 인상을 풍기는 곡이지만 어두운면은 없는 곡으로 이 곡은 전혀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가들은 그 악기의 성능과 역량을 짐작하면서 또는 악기의 기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곡을 쓰지만 이 작품은 전혀 그 기법이나 기타의 기능을 마치 무시해 버린것 같은 인상을 주는 곡이지만, 아마도이 곡이 고차원(高次元)의 기교를 요구하기 때문인것 같다. 어떤 기교에 억매인다면 그것이 전혀 음악의 요소가세거 당할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는 프랑스 6조의 인물로써 지극히 선율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이 곡에도 어김없이 별다른 반주없이 짜여져 있다. 무조적인 기법과 다조를 어울려 쓰는게 그의 특징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쓰고는 있는 것이다.

Alexandre Tansman 1897~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표톨리텔에 작곡을 사사(師事), 1920년 파리에 건너가 바벨, 프로란슈미트와 지휘자 고르슈만등과 교우(交友) 후 현대주의(Modernism)의 수법으로 폴랜드 음악에 새로운 감각을 담은 작품을 내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펼쳤던 그는 피아노와 지휘에도 명성을 날려 각지를 순회 연주 하였다. 그의 초기작품은 쇼핑의 영향을 받았는데 후에 시마노브스키, 스트라빈스키, 라벨등의 작품에 가까워졌다. 그는 때로 재즈의 요소도 넣어 사용했으며 폴랜드 민족음악에 기초를 두고 모든 기법을 가미하여 서정적(抒情的)이며 다이나믹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폴랜드 음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에게는 Suite(養殖 조목)를 위시하여 몇개의 기타곡이 있다.여기에 소개되는 「탄스만」의 3개의 소품집은 어떠한 때에도 분수에 넘치는 일을하지 않으며 성격적으로 항상 우아한 취미를 갖고있는 그의 음악적인 방향과 일치하는 작품으로 자유로이 노래하는 가운데 멜로디는 일정한 주제와 발전을 가지고 조용히 끝난다. 특히 세번째의 꼭 「오리엔트 자장가」는 중근동제국의 분위기를 가지고 셋잇단음표에서의 동양미의 흐름은 더한층 이 곡에 애착을 갖게한다. 꾸밈음과 쉽표 그리고 무리화음에 강약은 참으로 효과적인 것을 주게되는 곡들이다.

John Boda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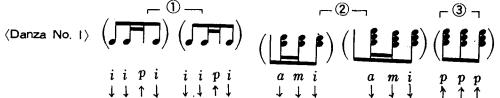
위스콘신(Wisconsin) 주 보이세빌리(Boyceville) 태생.

벤트(Kent) 주립대학과 이스트만(Eastman) 음악학교 졸업, 1956년 작곡 부문 박사학위 습득. 피아노가 그의 주연주(主演奏)악기였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프랑크린·카르나한(Franklyn Carnahan)과 호세·에카니즈(Jose Echaniz)를 스숭으로 하였다. 1946년에서 '47년에 그는 죠지‧쉘 (George Szell)의 제자로서 지휘자 역할을 하였다. (Cleveland Orchestra 지휘) 그때부터 미국남부에서 지휘자로서 또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해왔다. 1947년 부터 프

로리다(Florida) 주립 음악대학에서 음악이론, 작곡, 피아노의 교수로 있으면서 작곡부문 학위논문 십사 위원장 직을 맡아보았다. 그의 작품으로는 루터란 아워 코오러스(Lutheran Hour Chorus)를 위한 곡들과 벤자민 어워드 퍼 콰잇 뮤직(Benjamin Aword For Quiet Music), 오란도 오케스트라(Orlando Orchestra,) 그리고 기타를 위한 작품도 포함하고 있다.

Luise Pipo 1933~

스페인 그라나다 출생. 젊음에도 벌써 대가의 풍모가 엿보이는 작곡가 현재 파리에서 살며 좋은 작품들을 내고 있다.



각가 3가지의 주법에 명확한 특성을 구별해서 정확한 무곡의 리듬이 서로 연결되도록 주의한다. 이때, 엄지 (p)나 트레몰로를 구사하는 손가락의 관절은 완전 회전 (특히 a,m,i의 제 1,2 관절을 퍼서) 운동으로 그 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Araujo(브라질)

Sons de Carrilnões. 일명 종소리(Sound of Bells)는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기타곡이다. 한때 빌라 로보스 (Villa Lobos)의 작품이라고 와전되어 Chŏro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외국서적들이 많이 있었다. 3 부형식에 D장조 (D. Major), 중 박자 리듬이 지배하는 남미색이 짙은 곡이다. 연주 스타일은 파도타기

처럼 강약을 잘 표현해야 된다. 세레나데(Serenade)와 같은 뜻으로 여인의 창밑에서 노래하는것 같은 밝고 유쾌한 연주를 이뤄야 할 것이다.

Gerhard Maasz

(suite)

고전적인 형식을 빌어서 현대풍으로 표현한 작이다. 단지 이름을 빌린 것으로 끝난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무꼭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 히 Gigue의 🎵 🎵 🕽 의 리듬감을 잘 나타내야 할 것이다.





보기 ①과 ②에서 설명되듯이 컴파네라 (Campanella)형식을 쓴 운지를 참고로 실었다. 보기 ②와 ③에서 빠른 템포의 pmi의 규칙적인 운동에 합리적인 연결로서 다음의 스케일(Scale)에서도 똑같은 pmi의 운동으로 통일시켰다. 무릇 빠른 속도의 곡에서 허용한다면 개방현을 잘 이용하는 것이 왼손을 용이하게 돕는것으로 왼손의 운동에 심한 움직임과 모양 바꿈을 적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오른손은 한개의 움직이는 모양이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손상시키지 않는 규칙적인 합리적 운동이라야 한다. 예를 들어 보기③을 전부 im 또는 ma교호주법(交互奏法)으로만 사용한다고 할때 Gigue풍의 악센트는 무미건조하게 되는걸 느낄것이며 엄지와 im의 혼합이 보다 빠른 속도를 얻게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것들을 잘 관찰하여보면 ima가 엄지의 도움을 받을때 어떠한 점을 얻게되는 것인지 ima보다 pmi가 움직임에 있어서 얼마나자연스럽고 원할한 것을 주는지 확실한 특징과 취약점등을 발견하리라 믿는다. 악보엔 표시하지 않았지만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유형(類型)의 것에 특히 주자(奏者)의 많은 연구가 있기 바란다.